소음이 얼마나 소란했는지, 내가 지금껏 얼마나 많은 학에야 새롭게 느앤다. 오랜만에 만난 이 자유로운 감각인 학에야 새롭게 느앤다. 오래만에 만난 이 자유로운 감각인 너무을 신청 쓰며 지내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나라 참지만 너무를 신청 쓰다.

추운 겨울의 새하얀 밤과 끈적한 어름은 밤. 정반대의 시공간이지만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기분만은 안에서 헤엉치던 시절을 기억할 수 있다면, 만약 엄마의 양수 안에서 헤엉치던 시절을 기억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저지지 않는 불빛과 새어 나오는 소음이 얼마나 소란했는지, 내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자구을 신청 쓰며 지내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사라진

일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참 동안 사람이 오간 점 요날는 듯 바닥이 새하였다. 나는 주차된 차 보닛 위에 쌓인 눈을 손으로 그러모아 단단하게 쥐었다.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다. 혀를 내밀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 맛을 보고, 하얀 눈발에 발자국도 남겼다. 소리도 냄새도 있는 백색의 시간.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 자유로움이 좋아서 한참을 혼자 눈 쌓인 거리를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산책을 마치고 집 근처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세븐일레븐 간판에 번쩍 불이 들어오더니 가로등도 하나씩 빛을 밝히기 시작했다. "다행이네, 다행이야." 거리에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맥도날드 주차장에도 환한 조명이 들어와 있었다. 주차장을 이렇게까지 밝게 비춰야 하나 싶을 정도의 조도였다. 전기가 끊긴 15분 동안, 주차 정산을 하지 못해 줄 서 있던 차들이 차례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집 앞 나이아가라 단란주점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나는 원래 자리에서 멀어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수급실금 현관을 나섰다.

조금만 철어도 피부가 전득거리는 열매야다. 관원히 낯설계 느껴진만 하게 한 건 나다면 나무들이 바람에 전투리고, 나와 남편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골목을 서로의 작음한 과장는 지금만큼은 내가소을 꼭 잡고 함께 걷는다. 이상하게도 지금만큼은 내가소을 꾸 잘 한 잘 함께는 되분이 든다. 12을 만했다. 놀이터를 둘러싼 커다란 나무들이 바람에 에번 지나치는 익숙한 길인데도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대한 지나지는 되는 모든 것이 함께 된다. 나는 되는 함께 된 보는 이상하게도 되는 되었다. 그리도 되었다. 생생 난 건 아니겠지?" 그 어컴풋하게 들린다.

쪽으로 향한다.

찾아든다. 시끄럽게 돌아가던 예어컨 실외기 소리도 오늘은 없다. 구멍가게나 식당에서 틀어놓는 노랫소리조차 클리지 않아 적막하다. 가도 가도 정전의 끝은 보이지 않고, 관요함과 어둠은 체속해서 끌어진다. "아니, 엘리베이터에 가요함과 어둠도 많겠는데?" 우리의 궁금층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아주 멀리 소방자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만

55에서 뒮어지고 운데 उ수이 들어돬수로 작믕이

마는 신나서 민석에게 말한다. 우리는 거리 위 사람들을 다는 신나서 민석에게 말한다. 우리는 거리 위 사람들을 목소리도 들던다. "우리 오늘 낮에 장 안 보길 잘했다!" 전화해서 정전의 규모를 확인하는 발 빠른 사람의

노파심이 들었나 보다. "너네 집도 전기 나간?" 여기저기 길어 신신당부한다. 전기가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른다는 따야, 냉장고 문 열지 마라." 어떤 남자는 어딘가로 전화를 뭐 그 옛날에도 본 절이 없다. 상황 파악을 위해 집에서 전 그 옛날에 내 살부터 살았지만, 이렇게 어두운 모습은 29년

오래된 수택과 빌라가 모여있는 제주 도심. 이

민석은 서둘러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라기가 나간 거지? 제주 시내 한 가운데 까맣게 퍼진 어둠, 라고로 몸을 반쯤 대놓은 채 어둠을 구경했다. 자기 청향 라고로 몸을 반쯤 대놓은 채 어둠을 구경했다. 자기 청향 생화에 나올 별한 제난 상황이 신기해서 나와 민석은 청문 생화에 나올 별한 제난 상황이 신기해서 나와 민석은 청문 전 기가 나간 거지? 제는 상황이 신기해서 나와 민석은 청문 전 기가 나간 거지? 제주 시대 한 가운데 까맣게 피진 어둠.

를대시를 타의며 상황을 파라라고 있었다. 대체 어디까지 운데 사람들도 나처럼 창돈을 힘고 ○마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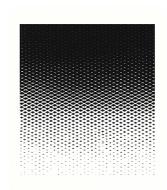
아, 정전이구나.

수차장 조명까지 싹 다 나갔다.

발행일 2025년 10월 7일 글쓴이 고은비 eunbiko.com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수필 합평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댓글로 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글은 jagunbae.com에서 확인하세요



까만 밤 하얀 밤 ^{고은비}

